

DMZ

2015 / 12 vol.07

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강원도의 DMZ 활용 방안 · 정혜용·김창환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릉시 지역학습 콘텐츠 제작 및
지오파크 연구 -강릉시의 지오투러리즘과 지오사이트 이예지·정혜용·김창환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동향 -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을 사례로- 허시영·정성훈



강원대학교

DMZ help DMZ HELP 센터

DMZ

2015 / 12 vol.07

목 차

논문

-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강원도의 DMZ 활용 방안 ... 정해용·김창환. 1
-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릉시 지역학습 콘텐츠 제작 및 지오파크 연구 -강릉시
의 지오투어리즘과 지오사이트 이예지·정해용·김창환. 11
-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동향 -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을 사
례로- 허시영·정성훈 31



강원대학교 DMZ HELP 센터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강원도의 DMZ 활용 방안

A Study on the Use of DMZ in Gangwon Province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Unification Base on the Korean
Peninsula

정해용(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정보체계협동과정 박사과정)

김창환(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Jeong, Hae-Yong (Ph. D course, Dept. of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Kangwon Nat'l Univ.)

KIM, Chang-Hwan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요 약 : 향후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과 한반도 중심의 국제협력모델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이다.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DMZ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및 유라시
아 국가전략과 연계될 수 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으로 남북협력의 통로인 DMZ를 평화
·생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라시아 신 실크로드 개발을 통해 남북 관광의 성장, 나
아가 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공생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키워드 : 비무장지대(DMZ),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Abstract :

A variety of strategies are needed to realize policies that will ultimately establish a unified basis through sustainable peace and pursuit of development. As a concrete action strategy, it is the creation of the DMZ World Ecological Peace Park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Eurasia Initiative and the Silk Road Express,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model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It can be linked with Northeast Asia and Eurasian national strategy centering on the Korean peninsula by utilizing the DMZ's values and resources that symbolize world peace. DMZ World Ecological Peace Park can be used for peace and ecology as a channel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Eurasian new silk road, we can expect the development of Gangwon-do as the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a symbiotic cooperation network extending to north-south tourism and further to Asia and Europe.

Keyword : DMZ(Demilitarized Zone), Korea DMZ World Ecology Peace Park, Eurasia Initiative, SilkRoad Express

I. 서론

6.25전쟁 이후 35년간 중단되었던 남·북간 교류는 1988년 7.7특별선언으로 재개되었다. 이후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남·북간 교류는 현재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이 되는 교류협력이 현 사회정치적 상황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이 제기되고 있어 현 상황을 개선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3대 전략 중 하나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서는 남북간 호혜적 교류 및 협력 확대를 기반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전략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동북아시아의 긴장해소 및 세계평화의 모티브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DMZ는 세계평화의 위협요소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의 전환 장소이자 남북 및 동북아시아의 공동 목적과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장소로서, DMZ만이 가지는 가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전략과 연계가 된다면, 향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각종 시너지가 창출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2013년에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의 창조, 공영 및 평화 대륙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모델이며, 이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Road Express, 이하 SRX)’ 구축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과 더불어 주요한 DMZ 평화발전전략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전략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한 전략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과거의 철의 실크로드 사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복합적인 국제수송로 구축 및 IT 기술의 접목 등 교통수단 및 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의 G2 부상, 세계 경제 중심의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 자원수송로의 중요성, FTA 등 경제공동체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으로 유라시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SRX 구축의 성공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2014, 서종원).

2000년대 초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복원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철의 실크로드를 따르는 철도 여행 관광, 물류 수송 등 인적·물적자원 교통로로서의 실크로드 연구가 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유라시아의 국가들이 철도 활용 및 건설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실크로드 재실현을 통한 경제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전략으로 SRX 구축 방안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위해 논의 중이며,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 고속철 및 항구 건설 협의를 구하는 중이다.

또한,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과 창조경제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전략을 바탕으로 DMZ를 보다 평화·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SRX 및 아시아 하이웨이 6번 국도 등 교통로를 이용한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新 실크로드 개발 방안은 기존의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 일반통행이었던 교류·경제노선을 외국인의 직접 유인을 통해 다각화된 방향의 교류·경제노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협력모델인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보다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으로서 강원도의 남북교류현황 및 북한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한 강원도의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新 실크로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강원도 남북교류 관련 정책 현황

1) 강원도의 남북교류 정책 현황

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는 1998년 9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0년 12월 평양에서 남북강원도교류협력 기본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씨감 자원종장 시설, 솔잎혹파리 방제 및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 추진을 합의하였고 이듬해부터 솔잎혹파리 시범방제와 연어치어 공동방류를 시행하였다. 솔잎혹파리 시범방제는 2008년까지 8차례 진행되었으며, 연어치어 공동방류는 2004년까지 총 4차례 진행된 후 안변 연어부화장 건립과 강원도의 연어 포획 및 부화 기술이전으로 2005년부터 북한 자체적으로 양어사업을 하고 있다.

2003년 12월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도로, 건축 등의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합의서 내용에 포함된 겨울철 체육교류협력을 토대로 하여 2006년 3월 춘천에서 남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가 개최되었다. 동년 11월 평양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지·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강원도의 남북교류 정책은 북한과의 실질적·성공적 협력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09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강원도 남북교류는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교류 사업의 분야는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와 같은 일회성 체육·문화 분야와 언어자원 보호증식 및 산림 병충해 공동방제가 대부분이며, 생산기반시설 조성, 건설자재 지원 등 물적 분야 지원 위주의 사업 전개는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조동호, 2013).

2008년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남·북간 교류 침체기로서 천안함 침몰, 5.24조치, 연평도 포격 등 긴장상황 속에서 냉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 교류 물꼬를 트기 위해 강원도 및 강원도 접경지역내에서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의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상황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현 북한의 정책 방향

북한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5년부터 농업개혁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및 어업이 약 22% 차지하는 북한은 농업개혁의 효과로 10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이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개혁 외에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는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다. 개인의 자율적 이동이 제한되는 북한에서 관광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관광 명소를 목표로 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등 다수의 관광특구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원산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항을 건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 중이다.

지난 9월, 북한 관광총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늘리고 싶다.'며 직접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 북한은 최근에 들어 외국인의 북한 관광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한 평양관광대학을 설립하고 지방대학에 관광학부를 신설하는 등 관광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 보유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국가 체제 내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며 인프라 시설은 국제적 관광 시설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북한은 관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 및 남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대표 관광특구로 선전중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접지역인 강원도와의 연계협력에 노력해야 한다.

3.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유라시아 新 실크로드 개발방안

1)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남북 대치의 상징인 DMZ가 세계평화의 위협요소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통일부에서는 5월 말, 『DMZ세계평화공원추진기획단』 발족하였고, 이후 코리아 DMZ협의회, 통일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한국DMZ학회 등에서 다양한 학술토론 및 정책 방안 논의를 통해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공간에 대한 고려 이후, 규모와 기능면에서 DMZ의 가치를 활용해야한다고 판단한 바, 각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지역별로 특화된 DMZ세계생태평화공원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므로, Spoke & Hub 방식의 전략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DMZ 일원은 정전 직후 폐허 상태에서 지난 60년 동안 인간의 간섭을 최대한 적게 받으며 자연적 천이가 이루어진 지역이므로 이곳의 자연적 가치를 활용하여 생태공원, 자연탐방로, 체험학습장 등의 기능들이 세계평화공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국제정서 및 남북관계를 고려한 단계별 추진 및 입지 장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 이름에서 보듯이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므로 남한 뿐 아니라 북한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정서를 감안하고 인근의 지역자산까지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DMZ 일원의 가치 제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과 동시에 입지장소를 고려해야 한다. 강원도 내에서 철원, 양구, 고성이 그 대상지로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유치를 자체 전략적으로 조성 유치에 힘쓰고 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대규모 보전 프로젝트인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및 유럽 그린벨트 사례를 통해 범국가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상징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예: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와의 평화 교류협력모델로 제시 가능하며, 남북통일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다른 국가들의 접이지대(DMZ세계생태평화공원 벨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외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고 벨트 내 주요 거점들을 중심으로 관광 실시하게 되면 주요한 관광명소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조성을 위한 시간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벨트 내에서의 거점 중심으로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향후 남북관광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서 강원도는 무엇보다 이를 강원도 접경지역에 걸쳐있는 DMZ내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유라시아 신 실크로드 개발 방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전략인 SRX 구축은 운송 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도로·해상·항공·내륙항만 등이 결합된 국제복합수송로로 화물 중심의 철의 실크로드와 구별되는 여객수송로로서의 기능도 포함된 개념이다. SRX 구축은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실현하기 위한 보다 많은 검토를 요한다. 그리고 철도가 주된 수송로로 검토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창조관광형 신 실크로드’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류 협력의 가장 핵심은 인적·물적 교류이다. 그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은 관광으로, 국가 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관광을 통한 외국인의 직접 유인으로 다각화된 방향의 교류·경제노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인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보다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창조관광형 ‘유라시아 新 실크로드’이다.

현재,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활용한 관광은 현재 중국 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운영 중인 실크로드 관광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창조관광형 신 실크로드 관광과 목적 및 범위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본 관광경로는 <그림 2>와 같이 현재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된 주요 철도 및 도로망을 활용한다.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한 카루트(Caravan Route) 관광, 철도 및 도로를 활용한 알루트(Rail-Road Route) 관광, 철도-도로-항만을 활용한 콤플렉스(Complex-Route) 등 3R Smart-Way를 기본으로 하며, 독일(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중국(몽골)-북한-남한을 주요기점으로 하는 관광이다.

유라시아 신 실크로드 개발은 단순히 유럽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교통망만을 이용한 관광이 아니다. 이는 일반관광과 달리 장소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이다. 즉, 풍부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바탕으로 진정성 넘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관광지의 고유 문화를 영위해가는 지역주민들과의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창조관광이다.

유럽의 많은 관광객들은 캐러반, 철도, 크루즈 등을 이용하여 유라시아 신 실크로드 Smart 3R을 통해 유라시아 및 중국, 북한의 백두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DMZ, 남한의 철원, 양구, 고성(설악산)을 거쳐 평창으로 오는 경로로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관광경로만을 의미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의 그뤼네스반트-유라시아-중국(몽고)-백두대간(백두산, 금강산, DMZ, 철원, 양구, 고성(설악산), 평창)을 잇는 평화생태벨트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위치하게 되면 관광경로의 의미가 세계평화 및 생태의 상징적인 경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조성 및 Smart 3R을 통한 유라시아 신 실크로드 개발은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보다 단축할 수 있으며, 주변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면에서 협력

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외부 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고,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조성 및 남북협력의 돌파구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을 위하여 강원도는 3가지 차원의 주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앙정부의 역할론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EU, ASEAN,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협약체(CAREC),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등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및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북한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남북강원도관광협정(가칭)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과뿐만 아니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DMZ 활용에의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이다.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은 유럽-유라시아-중국-몽고-북한-남한의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의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직·간접적인 활동일 될 수 있을 것이며,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관광경로를 중심으로 관련 국가 및 국가 내 지방정부간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강원도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강원도가 주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산·학·민·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차원에서의 남북교류에 관한 핵심 어젠더 도출과 이에 따른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초기 시작은 강원도가 주도하여 민간 관광업체들과 관련 기업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관광서비스산업의 가치사슬망의 구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의 주요 실크로드 및 철도 관광 업체 등 추진 기구가 구축되어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에 대한 협력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북한과의 교류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이 강원도의 DMZ를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서 및 창조경제의 실천전략으로서 제시한 DMZ세계생태평화공원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공영, 평화, 창조의 모티브로 한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좋은 연결고리를 강원도는 보유하고 있

다. 유럽 및 아시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세계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신 실크로드 관광경로를 통해 올림픽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 유인을 통해 북한의 관광노선에 일조하고,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될 수 있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유라시아 국가들의 지지 아래 북한과의 화해모드 및 평화적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은 기존 비연속적 유라시아-한반도의 교류·경제 노선에 있어 유기적이며 다각화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북방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그뤼네스 반트-유라시아-한반도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의 기반으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으로 남북협력의 통로인 DMZ를 평화·생태적으로 활용하고,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을 통해 남북 관광의 성장, 나아가 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공생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도, 2010 “밝은 내일을 향한 큰 걸음 남북강원도교류협력 10년의 발자취”, 강원도.
- 나희승, 2014,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14(2), 20-34.
- 박은진, 2013, “DMZ세계평화공원과 접경지역의 미래”, 경기개발연구원.
- 송기현, 2009, “관광루트로서의 실크로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1(1), 32-43.
- 서종원, 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월간교통, 2(192), 44-47.
- 신윤숙, 2001, “유라시아 횡단철도 연결에 따른 철도여행의 관광상품화 전망”, 문화관광연구, 3(2), 109-133.
- 심상진, 2007, “남북관광이 국내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정책, 2014(30), 38-42.
- 이부형, 이해정, 이용화, 2014,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 이재훈, 2014,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 철도망구축과 정책과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연결방안 세미나 자료집.
- 전경주, 2013, “한반도 평화조성과 DMZ 세계평화공원”, 주간국방논단, 1481, 13-38.
- 조규진, 2004, “대륙실크로드와 비교한 유라시아횡단철도의 의미”, 마케팅, 2004(10), 69-74.

- 조동호, 201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DMZ 패키지 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13(20).
- 조찬성, 2014, “최근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전략이 주는 시사점”, 한반도현안툫아보기, 3(3), 1-16.
- 주풍, 2006, “남북철도를 활용한 대북 관광산업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범희, 허남균, 허희영, 2008, “유라시아 철도의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21(2), 137-170.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go.kr/>

교신 : 정해용,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 033-250-6699, 팩스 : 033-259-5597, 이메일 : wjdgofyd@hanmail.net

Correspondence : Jeong, Hae Yong, adress, Department of Educational Geograph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ersity Road, Chuncheon-si, Gangwon-do, 200-701, Korea, Tel: +82-33-250-6699, Fax: +82-33-259-5597, e-mail: wjdgofyd@hanmail.net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릉시 지역학습 콘텐츠 제작 및 지오파크 개발 연구

- 강릉시의 지오투어리즘과 지오사이트 -

A Study of Development of local learning contents and geopark
development in Gangneung city in connection with Winter Olympics.
- Geo-tourism and Geosites in Gangneung city-

이예지(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과정)

정해용(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정보체계협동과정 박사과정)

김창환(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Lee, Ye-ji(Ph. M course,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Jeong, Hae-Yong (Ph. D course, Dept. of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Kangwon Nat'l Univ.)

KIM, Chang-Hwan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요약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는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따라서, 강릉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학습 콘텐츠 및 지오파크 개발이 필요하다. 강릉시는 다양한 인문, 자연 경관을 지닌 지역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시의 자연·인문적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오투어리즘 탐방 코스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강릉시의 자연·인문적 특성을 테마로 하여 강릉 북부, 남부, 동서횡단 지오투어리즘 코스가 도출되었다. 이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행사에 일조할 수 있으며, 강릉지역의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지오투어리즘, 지오사이트, 지오파크, 동계올림픽, 강릉

Abstract : The hosting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will create a significant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 not only in the country but also in the reg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local learning contents and geoparks in connection with successful winter Olympics, focusing on Gangneung. Gangneung city is an area with a variety of humanities and natural landsca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human characteristics of Gangneung city and based on this, we developed the geo-tourism tour. As a result, the geo-tourism courses of north, south, east and west of Gangneung were derived with the theme of nature and human nature of Gangneung city. This can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events of the Winter Olympics and can be used as a tourism program in the Gangneung area.

Keyword : Geo-tourism, geosite, geopark, winter olympic games, Gangneung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8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에서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80여 개국 선수 및 임원, IOC 패밀리, 보도진 등 2만 6천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열리게 되는 세계의 축전 중의 하나이다(왕광익, 2012).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이며(이상대 외, 2011), 이에 강릉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유치 및 관광객에 대한 수요 만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고속철도 개통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기존의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나, 현재의 강릉시는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계절성 관광객의 편차를 보다 좁히고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은 동계 올림픽 준비위원회 및 공공기관만의 역할은 아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의 거주민의 적극적인 수용태세가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의 기준에서 타 지역의 학생을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쉬울 수 있다. 이러한 눈높이와 이해를 바탕으로 강릉시의 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

강릉시는 오죽헌, 경포대, 객사문, 선교장 등의 문화역사자원과 정동진 해안단구, 안반데기의 고위평탄면, 경포호 등의 석호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도시이며,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콘텐츠화하고 관광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지역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듯 강릉시에는 많은 자연인문자원이 산재되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가치 있는 장소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를 테마별로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가미된 대표적인 명소를 선정하고, 명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향후 향토지리답사 및 현장학습, 나아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일조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본인 고장에 대한 애정 증진과 더불어 지리적 지식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경험을 체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배경지식

(1) 지질공원(Geopark) 개요

세계적인 이슈로서 자리매김한 유네스코 지정 자연환경보존제도, 즉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Geopark)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 등 일부지역에서 지정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나, 1990년대 유네스코에서 지지하는 하나의 제도인 지질공원에 대해서는 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소해하고 있다(김창환, 2009). GGN(세계지질공원망, Global Geopark Netwok)에서는 정의하는 지질공원은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질학적 유산의 경관지역이고, 희귀한 자연성, 심미적 가치성이 있으며, 일정한 면적과 분포를 가진 지역이다. 또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흥미가 통합된 자연지역으로 높은 과학적 수준의 여행과 관광, 휴가, 건강증진 및 문화적 여가의 장소이며, 지질학적 유산의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구과학 연구 및 대중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지역이다(2011, 정해용).

국내 「자연공원법」에서는 지질공원을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공원”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질공원의 목적은 지형·지질 유산과 함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발굴·보전함과 동시에 연구·보급·교육에 활용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질공원은 높은 과학적 수준의 여행과 관광, 휴가, 건강 증진 및 문화적 여가의 장소이고 지질유산의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구과학 연구 및 대중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지질공원은 지구유산의 보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다른 자연환경 보전제도(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와 차별화된 제도이다(강원도, 2013).

지질공원은 현재 세계 34개국내 111개소가 세계지질공원망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 제주도 지질공원이 최초로 인증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가 지질공원으로는 현재, 울릉도·독도지질공원, 제주도지질공원, 부산지질공원, 청송지질공원,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무등산지질공원이 인증되어 관리 중에 있다.

(2) 지오투어리즘

지오투어리즘이란 다양하고도 우수한 지형 및 지질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형태이다. 지오투어리즘은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자연생태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영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전영권, 2005). 지오투어리즘은 일반 생태관광과는 달리 계절적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탐방객들에게 지형 및 지질에 대한 체계적 교육으로 환경보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전영권, 2005). 특히 일부 지질공원에서 지오투어리즘이 경제적으로 성공

함에 따라 관광산업에서 주목을 받았다(강원도, 2013).

지오투어리즘의 주 목적은 지질·지형 경관 등의 지구유산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유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탐방객들에게 제공하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안내 해설체계와 서비스 시설을 구축하는 등 지구과학적 지식과 대중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지질공원 내에는 자연관찰로, 안내 설명판, 안내 지도, 학습관 등 전시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해설사를 동반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학습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탐방객 대상별로 각각의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 지오사이트

지형·지질명소, 즉 지오사이트는 어느 지역의 경관, 일련의 대지형군(Landforms), 단일 지형, 노두(outcrop), 화석층 혹은 화석 등 지형·지질적 특성이 있는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Geoheritage가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일컫는다(이수재 외, 2008). 지질공원은 지형·지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생태적,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개발대상이 가능한 범위보다 큰 규모로서의 자산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지오사이트는 이에 포함되는 요소이다(이수재 외, 2008).

3) 자료조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내조사 및 야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실내조사는 강릉시의 지오사이트 선정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자연경관 및 문화역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지형도 중 강릉시 대상 14개 도엽 및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지형분야 보고서(2006-2012)의 우수등급(I~II)대상 지형경관, 기타 지형·지질 관련 보고서 및 서적 등에서 수집한 지형·지질경관 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역사적 특성은 디지털 강릉문화 대전 및 관련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도출하였다. 야외조사는 1차 2015년 6월에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강릉시의 자연·인문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지오사이트를 선정하여 지오투어리즘 코스를 개발하였다. 실제 관찰 및 이동 가능한 코스 내에 다양한 유형의 지오사이트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고, 경포대를 중심으로 강릉시의 자연·인문적 특징을 반영하는 3개의 테마별 지오투어리즘 코스를 개발하였다.

2. 연구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적 특성

1) 연구지역 개관

강릉시는 약 21만 명(2014년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는, 강원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자 영동지역의 수부도시이다. 총면적 1,040.4km²로 강원도 총면적의 약 6.2를 차지하며 강원도 해안선의 20.2%인 64.5km의 해안선을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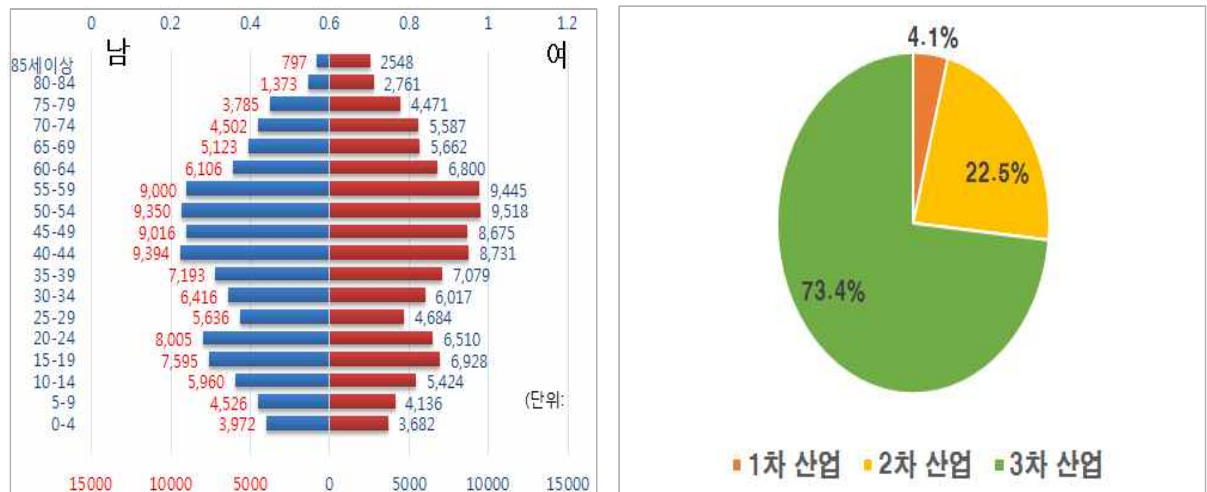
강릉시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도시 서쪽은 산간지역이며 동쪽으로 급격히 내려오면서 저평한 구릉지대와 평야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동해와 맞닿아있다. 동쪽은 두리봉(1,422m), 노인봉(1,338m), 매봉(1,173m), 고루포기산(1,238m), 석병산(1,055m)등 해발 1,000이상의 높은 산봉우리들이 평창군 및 정선군과 맞닿아 있다.

하천은 대체적으로 서쪽을 분수계로 하여 동해로 흐르며 강릉의 가장 규모가 큰 하천은 남대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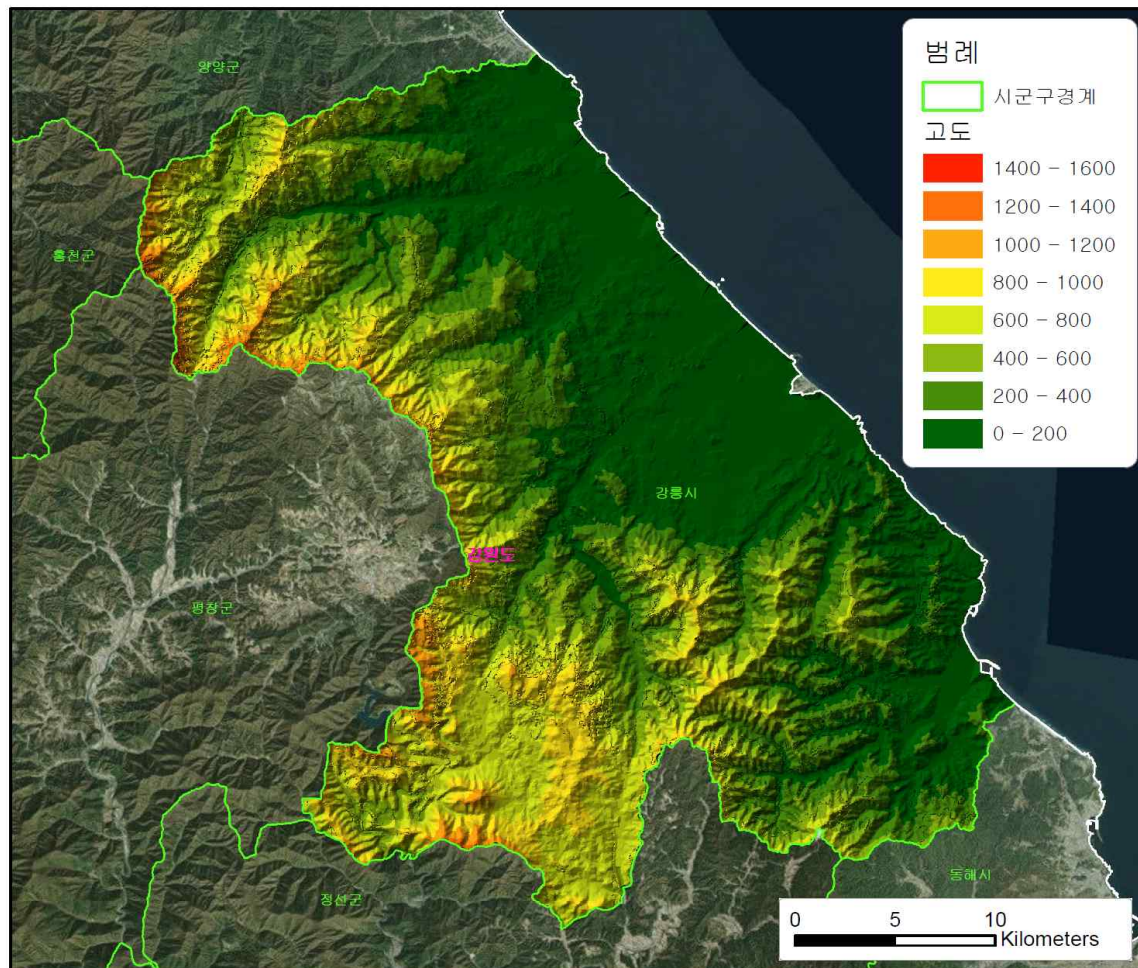
2) 강릉시의 인문 환경적 특성

강릉시는 오래전부터 예맥족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고구려 미천왕 때 고구려 세력과 합쳐져 ‘하서랑’ 또는 ‘하슬라’라고 불리었다. 그 후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경덕왕 때 ‘명주’라고 불리었으며, 고려 충렬왕에 이르러 강릉부로 명명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1년에 강릉면이 강릉읍으로 승격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55년에 강릉읍, 성덕면, 경포면을 합하여 강릉시로 승격과 동시에 강릉군을 명주군으로 개칭 분리 하였다가, 1995년 1월 1일 강릉시, 명주군을 통합하여 통합강릉시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강릉의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217,464명으로 강원도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강원도 : 1,558,885명). 청년층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장년층과 노년층은 여성의 비율은 인구 구조를 갖고 있다. 강릉의 산업별 구조를 보면 3차 산업이 73.4%로 두드러지며, 2차 산업이 22.5%, 1차 산업은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은 주로 관광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그림 1] 강릉시의 인구(좌) 및 산업구조(우), 2014년 기준



[그림 2] 강릉시의 지형기복>

3) 강릉시의 자연 환경적 특성

강릉시의 지형은 한반도의 용기와 큰 관련이 있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 강릉시의 서부지역은 고도가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산맥에서 뺀어 나온 산 줄기들은 바다와 수직으로 발달하였으며 비교적 낮은 구릉성 산지이다. 구릉성 산지들 사이로는 하천과 평야가 발달하였으며,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하구에서는 신생대 해수면 변동에 의해 형성된 석호와 그 흔적들이 발견된다.

하천은 대부분 서남쪽에서 발원하여 북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강릉을 대표하는 하천은 남대천으로, 그 지류들이 삼당령, 닭목재, 대관령 등지에서 발원하여 깊은 계곡을 만들며 흘러 성산면 일대에서 합류한다. 이외에도 신리천, 연곡천, 사천천, 등이 있으며 하천의 골짜기들 양안에는 평지와 구릉이 발달한다. 평지는 해안으로 갈수록 더욱 넓게 나타나며 강릉 시내 일대는 평지가 가장 넓게 전개된 지역 중 하나이다.

강릉은 전반적으로 단조로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안인진 일대를 기준으로 북쪽은 사빈과 사구, 석호 등의 해안 퇴적지형이 탁월한 반면, 남쪽은 해식애 등이 잘 나타나는 암석해안이 나타난다.

강릉 지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암석이 모두 분포하고 있다. 화강암은 강릉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는 암석으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군선천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화강암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고생대 지층의 퇴적암과 해안단구층이 나타난다. 퇴적암에는 흑색을 띠는 셰일과 사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석탄도 발견된다. 특히 옥계 일대에는 순도가 높은 석회암이 분포하고 있어 시멘트공업이 발달하였다.

강릉의 기후는 태백산맥과 동해의 영향으로 동위도의 타지역에 비해 겨울이 따뜻하고 연교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태백산맥이 북동 기류를 막는 장벽 역할을 하여 2~3월에 큰 눈이 자주 내리며, 봄철에는 저온현상이 발생한다.



[그림 3] 강릉시 기후그래프(좌)와 2014년 강릉 폭설(우)

3. 지오사이트 선정과 지오투어리즘 코스 개발

1) 지오사이트 선정

(1) 지오사이트_지리 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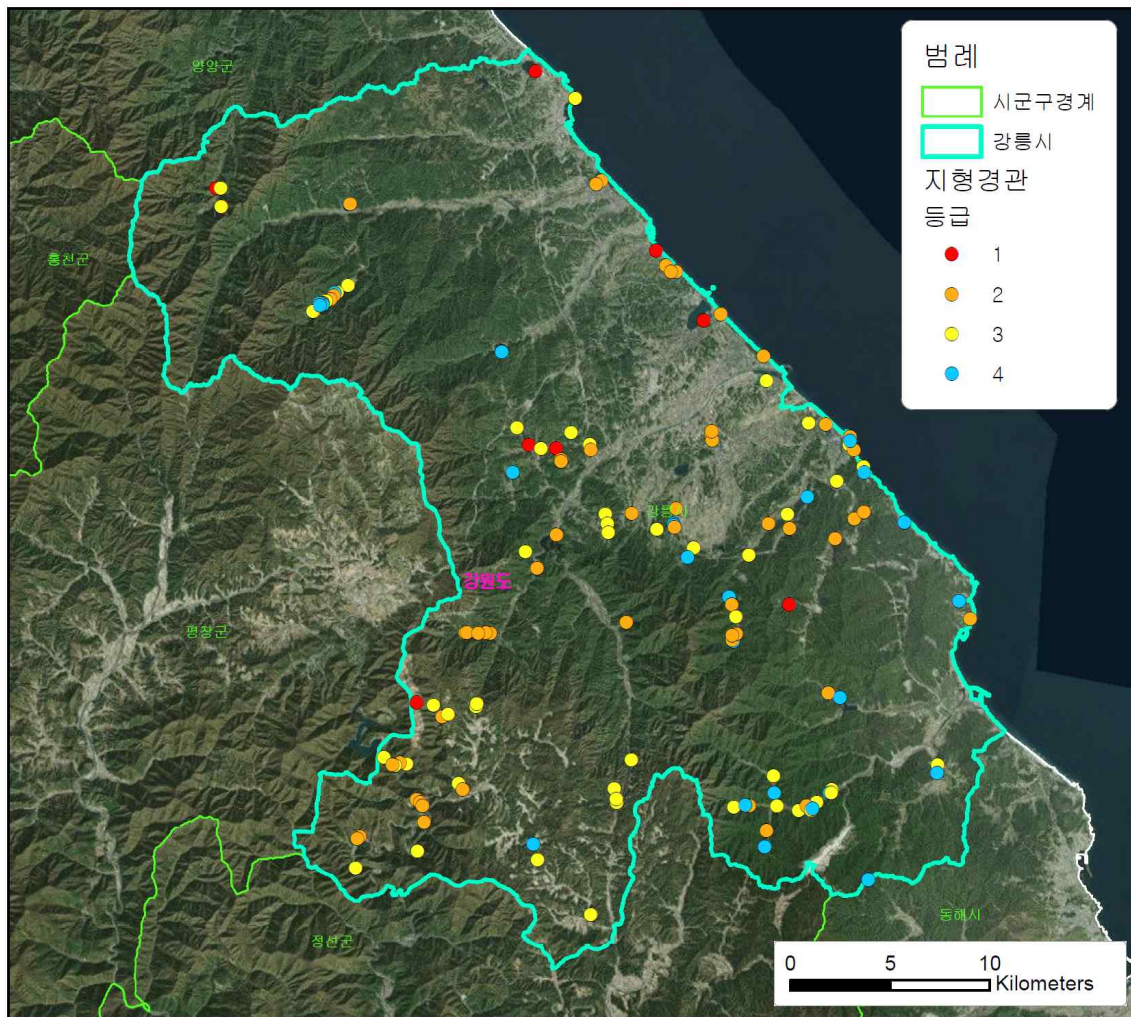
[표 1] 강릉시의 지오사이트_지리 명소 현황

연 번	도엽명	대분류	지형명	등 급	연 번	도엽 명	대분류	지형명	등 급
1	퇴곡	하천지형	소	1	40	구산	기타	판상절리	2
2	주문진	해안지형	석호	1	41	구산	하천지형	소	2
3	주문진	해안지형	해안타포니	1	42	구산	산지 지형	나마	2
4	강릉	해안지형	석호	1	43	구산	하천지형	소	2
5	강릉	해안지형	모래해안	1	44	구산	하천지형	소	2
6	봉산	산지 지형	고위평탄면	1	45	구산	하천지형	소	2
7	구산	기타	새프롤라이트	1	46	안인	하천지형	하천습지	2
8	구산	기타	해석	1	47	안인	기타	해석	2
9	안인	하천지형	소	1	48	안인	기타	해석	2
10	퇴곡	산지 지형	나마	2	49	안인	기타	새프롤라이트	2
11	퇴곡	기타	암맥	2	50	안인	해안지형	해안사구	2
12	퇴곡	산지 지형	암괴류	2	51	안인	해안지형	시스택	2
13	퇴곡	하천지형	소	2	52	안인	기타	암석해안	2
14	퇴곡	산지 지형	토르	2	53	안인	기타	해석	2
15	퇴곡	산지 지형	판상절리지형	2	54	안인	기타	새프롤라이트	2
16	퇴곡	산지 지형	토르	2	55	안인	하천지형	곡저평야	2
17	퇴곡	하천지형	폭포	2	56	안인	기타	습곡	2
18	주문진	해안지형	파식대	2	57	안인	산지 지형	애추	2
19	사기막	해안지형	사취	2	58	안인	산지 지형	판상절리지형	2
20	사기막	기타	강하구역	2	59	안인	하천지형	폭포	2
21	강릉	해안지형	범	2	60	안인	산지 지형	급애	2
22	강릉	해안지형	모래해안	2	61	안인	산지 지형	토르	2
23	강릉	해안지형	해안사구	2	62	안인	하천지형	소	2
24	강릉	해안지형	사구습지	2	63	고단	기타	풍화층	2
25	강릉	해안지형	모래해안	2	64	고단	하천지형	소	2
26	봉산	하천지형	하천습지	2	65	석병	하천지형	포트홀	2
27	봉산	하천지형	포트홀	2	66	석병	하천지형	폭포	2
28	봉산	하천지형	감입곡류구간	2	67	석병	산지 지형	애추	2
29	봉산	하천지형	하안단구	2	68	석병	하천지형	포트홀	2
30	봉산	산지 지형	급애	2	69	정동	해안지형	해식동	2
31	봉산	하천지형	감입곡류구간	2	70	퇴곡	하천지형	하안단구	3
32	봉산	하천지형	하안단구	2	71	퇴곡	하천지형	용천	3
33	봉산	기타	습곡	2	72	퇴곡	산지 지형	나마	3
34	구산	기타	해석	2	73	퇴곡	산지 지형	급애	3
35	구산	기타	해석	2	74	퇴곡	하천지형	소	3
36	구산	기타	해석	2	75	퇴곡	하천지형	소	3

연번	도엽명	대분류	지형명	등급	연번	도엽명	대분류	지형명	등급
37	구산	산지지형	급애	2	76	퇴곡	하천지형	폭포	3
38	구산	산지지형	암괴류	2	77	퇴곡	산지지형	판상절리지형	3
39	구산	기타	새프롤라이트	2	78	퇴곡	하천지형	포트홀	3

[표 1] 강릉시의 지오사이트_지리 명소 현황(계속)

연번	도엽명	대분류	지형명	등급	연번	도엽명	대분류	지형명	등급
79	퇴곡	하천지형	소	3	117	고단	기타	새프롤라이트	3
80	주문진	해안지형	해안타포니	3	118	석병	하천지형	소	3
81	주문진	산지지형	나마	3	119	석병	산지지형	암괴류	3
82	강릉	하천지형	포인트바	3	120	석병	하천지형	폭포	3
83	봉산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21	석병	하천지형	포트홀	3
84	봉산	기타	매스무브먼트	3	122	석병	산지지형	애추	3
85	봉산	하천지형	하식애	3	123	석병	기타	암맥	3
86	봉산	하천지형	소	3	124	석병	하천지형	포트홀	3
87	봉산	하천지형	소	3	125	석병	하천지형	폭포	3
88	봉산	산지지형	애추	3	126	목호	하천지형	하식애	3
89	구산	기타	해석	3	127	퇴곡	하천지형	하중도	4
90	구산	기타	해석	3	128	퇴곡	해안지형	해식애	4
91	구산	기타	해석	3	129	퇴곡	하천지형	소	4
92	구산	기타	구릉지	3	130	퇴곡	하천지형	소	4
93	구산	하천지형	소	3	131	퇴곡	산지지형	급애	4
94	구산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32	퇴곡	하천지형	소	4
95	구산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33	퇴곡	산지지형	급애	4
96	구산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34	사기막	하천지형	인공호수	4
97	안인	해안지형	해안단구	3	135	구산	기타	암맥	4
98	안인	기타	암석해안	3	136	안인	기타	퇴적층	4
99	안인	해안지형	해식애	3	137	안인	기타	새프롤라이트	4
100	안인	해안지형	해안타포니	3	138	안인	기타	퇴적층	4
101	안인	산지지형	판상절리지형	3	139	안인	기타	해석	4
102	안인	산지지형	풍화동굴	3	140	안인	기타	해석	4
103	안인	기타	해석	3	141	안인	기타	풍화층	4
104	안인	기타	산록완사면	3	142	안인	산지지형	판상절리지형	4
105	안인	산지지형	판상절리지형	3	143	안인	산지지형	애추	4
106	안인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44	고단	산지지형	악지	4
107	안인	하천지형	포트홀	3	145	석병	기타	층화층	4
108	고단	기타	풍화층	3	146	석병	산지지형	풍화동굴	4
109	고단	산지지형	나마	3	147	석병	산지지형	나마	4
110	고단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48	석병	기타	풍화층	4
111	고단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49	석병	하천지형	소	4
112	고단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50	석병	기타	절리	4
113	고단	기타	풍화층	3	151	석병	기타	암맥	4
114	고단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52	정동	산지지형	토르	4
115	고단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53	정동	산지지형	토르	4
116	고단	기타	새프롤라이트	3	154	목호	하천지형	하천습지	4



[그림 4] 강릉시의 지오사이트_지리 명소 현황

강릉시의 지오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제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조사된 강릉 지형의 지형경관을 분류한 결과, 총 154개소로 나타났다. 강릉시가 포함된 1:25000 도엽 중 지형 경관이 존재하는 도엽은 총 11개 도엽(강릉, 고단, 구산, 묵호, 봉산, 사기막, 석병, 안인, 정동, 주문진, 퇴곡 도엽 등)이다. 안인 도엽은 지형 경관이 총 37개소로 가장 많고, 퇴곡(26개소), 구산(23개소), 석병(19개소) 순이다. 대분류군으로 살펴보면 하천지형이 48개소, 산지지형이 35개소, 해안지형이 19개소이며, 기타로 분류된 지형은 52개소이다.

강릉시의 지오사이트 후보군을 등급별로 재분류한 결과 1등급이 9개소, 2등급 60개소, 3등급 57개소, 4등급은 28개소이며, 보전에 가치가 있는 1·2등급의 총 개수는 69개소이다. 1등급으로 지정된 지형은 안반덕 고위평탄면, 부연동 가마소, 사천 해변, 향호, 경포호, 주문진 소돌 등이다. 이와 같이 1등급으로 지정된 강릉시의 지형 경관은 지오투어리즘 코스를 개발하는데 활용하였다.

(2) 지오사이트_문화역사 명소

강원도 문화재 총괄 현황에 따르면 도내 문화재는 총 595개이며, 이중 강릉시는 약 21%에 해당하는 125개를 보유하고 있다. 국보 1개, 보물 16개, 사적 3개, 천연기념물 5개, 명승 2개, 중요민속문화재 1개, 중요무형문화재 2개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32개이다.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자료로 구분되는데 각각 38개, 15개, 4개, 0개로 총 57개이다. 그 외 문화재자료 35개, 등록문화재 1개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 세부현황은 <표 3>과 같으며, 강릉시 문화재 중 주요 문화재를 지오투어리즘 문화역사 코스로 활용할 것이다.

[표 2] 강릉시의 지오사이트_문화재 총괄 현황

구 분	총 계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 정 문 화 재					문 화 재 자 료	등 록 문 화 재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천 연 기 념 물	명 승	중 요 민 속 문 화 재	중 요 무 형 문 화 재	소 계	유 형 문 화 재	기 념 물	무 형 문 화 재	민 속 자 료		
강원도	595	169	8	62	17	42	25	11	4	262	155	79	24	4	129	35
강릉시	125	32	1	16	3	5	2	1	2	57	38	15	4	-	3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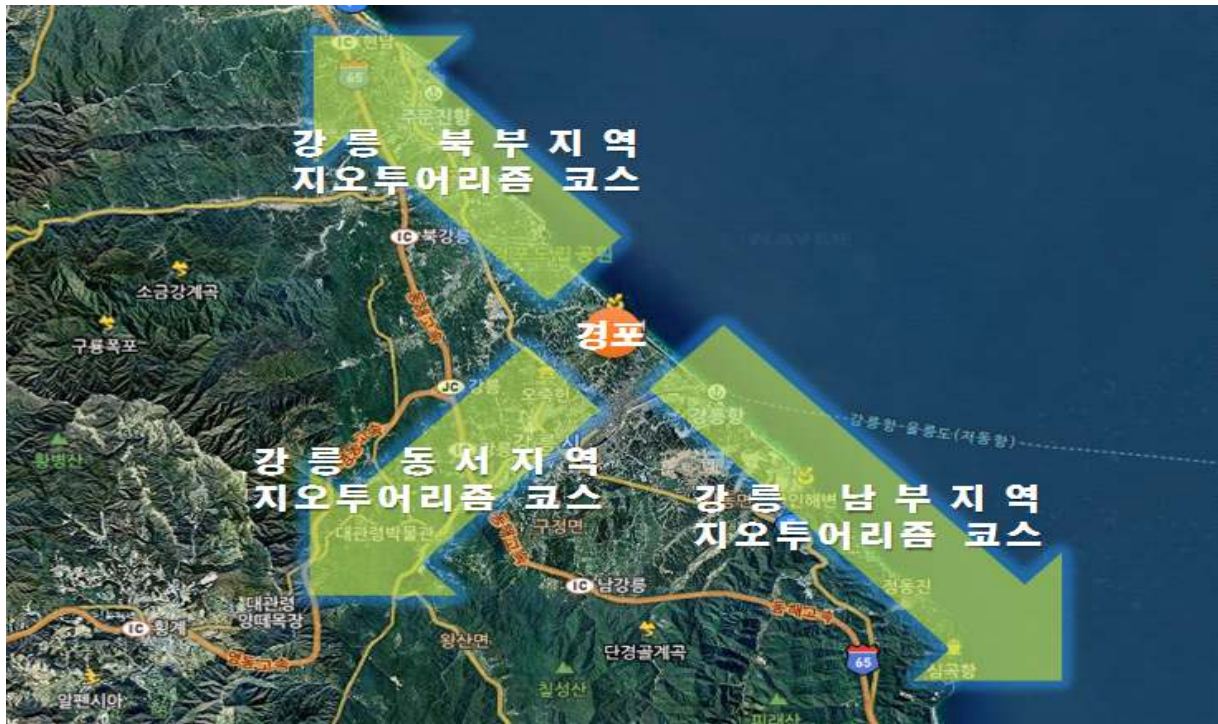
[표 3] 강릉시의 지오사이트_문화재 세부현황

구 분		문화재 내용
계		125개 문화재
국 가 지 정	소 계	32개 문화재
	국보(1)	◆강릉 : 임영관 삼문(51호:용강동)
	보물(16)	◆강릉 : 한송사지 석불좌상(81호:죽현동 오죽현시립박물관), 대창리 당간지주 (82호:옥천동), 수문리 당간지주(83호:옥천동), 신복사지 석불좌상(84호:내곡동), 굴산사지 부도(85호:구정면), 굴산사지 당간지주(86호:구정면), 신복사지3층석탑 (87호:내곡동),

구 분		문화재 내용
		오죽헌(165호:죽헌동), 해운정(183호:운정동), 보현사 낭원대사 오진탑(191호:성산면), 보현사 낭원대사오진탑비(192호:성산면), 강릉문묘 대성전(214호:교동), 이이수필 격몽요결(602호:죽헌동 오죽헌시립 박물관), 정덕계유 문무잡과방목(603호:오죽헌시립박물관), 명안공주관련유물 (1220호:오죽헌시립박물관), 황기로 초서(1625-1호:오죽헌시립박물관)
	사적(3)	♦강릉 : 임영관지(388호:용강동), 굴산사지(448호:구정면), 초당동유적(490호:초당동)
	천연 기념물(5)	♦강릉 : 장덕리 은행나무(166호:주문진읍), 정동진 해안단구(437호:강동면), 산계리 굴참나무군(461호:옥계면), 오죽헌 울곡매(484호:죽헌동), 방동리 무궁화나무(520호:방동리)
	명승(2)	♦강릉 : 청학동 소금강(1호:연곡면), 대관령 옛길(74호:성산면),
	중요민속 문화재(1)	♦강릉 : 강릉 선교장(5호:운정동)
	중요무형 문화재(2)	♦강릉 : 강릉농악(11-라호:정희철), 강릉 단오제(13호:조규돈, 빈순애, 김종군)
도 지 정	소 계	57개 문화재
	유 형 문 화 재 (38)	♦강릉 : 경포대(6호:저동), 칠사당(7호:명주동), 향현사(8호:교동), 이씨 분재기(9호:죽헌동 오죽헌시립박물관), 울곡유품(10호), 신사임당 초충도병 · 매창매화도 및 옥산국화도첩 · 옥산서병(11호,12호,13호), 방내리 3층석탑 (36호:연곡면), 등명사지 5층석탑(37호:강동면 낙가사), 계련당(39호:교동), 신사임당초서병풍(41호:죽헌동 오죽헌시립박물관), 송담서원(44호:강동면), 오봉서원(45호:성산면), 임경당(46호:성산면), 오성정(47호:노암동), 방해정(50호:저동), 상임경당, (55호:성산면), 화부산사(57호:교동), 황산사(58호:운정동), 경양사(59호:저동), 호해정(62호:저동), 심상진가옥(79호:운정동), 오규환 가옥(80호:임당동), 최대석가옥(81호:박월동), 정의윤가옥(93호:구정면), 조수환가옥(96호:노암동), 강릉향교(99호:교동), 회암영당 주희영정(107호:유천동), 보광리 석조여래좌상(111호:성산면), 관음리 5층석탑(112호:성산면), 박중신 문과급제교지(116호:죽헌동 오죽헌시립박물관), 난설현시집 목판초간본(124호), 송라사석조약사여래 좌상(129호:연곡면 송라사), 청학사소장 석조관음보살상 및 복장유물(146회:구정면), 관음사소장

구 분		문화재 내용
		목조관음보살좌상(149호:금학동), 관음사소장 동종(150호:금학동), 보현사 아미타삼존불좌상(167호:성산면)
	기 념 물 (15)	♦강릉 : 경포(2호:저동), 용지(3호:옥천동), 명주군왕릉(12호:성산면), 하시동 고분군(18호:강동면), 대공산성(28호:성산면), 운산리 은행나무(29호:운산동), 동대굴(35호:옥계면), 서대굴(36호:옥계면), 옥계굴(37호), 비선굴(38호:옥계면), 영진리 고분군(42호:연곡면), 대관령 성황사 및 산신각(54호:대관령면), 옥천동 은행나무(64호:옥천동), 보광리 분청자 요지(69호:성산면), 고려성(79호:강동면)
	무형 문화재(4)	♦강릉 : 학산오독떼기(5호:구정면, 김철기 · 정완화 · 윤홍용 · 최삼명),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10호:사천면, 조규복 · 보존희), 방짜수저장(14호:입암동), 갈골과즐(23호:사천면, 최봉석)
문화재 자료 (35)		♦강릉 : 강릉 귀부 · 석불입상 · 옥천동 석탑재(2 · 3 · 4호:강릉시립박물관내), 금란정(5호:저동), 보진당(6호:옥천동), 보현사 대웅전(37호:성산면), 굴산사지 석불좌상(38호:구정면), 산계리 석탑(43호:옥계면), 금강산성(47호:연곡면), 강릉 비석군(48호:강릉시립박물관내), 강릉 효자리비(49호:옥천동), 연곡고분(53호:연곡면), 최근배 가옥(55호:노암동), 김덕래 가옥(56호:죽헌동), 김윤기 가옥(57호:죽헌동), 김윤기 가옥(58호:노암동), 이광노 가옥(59호:초당동), 남진용 가옥(60호:담산동), 최상순 가옥(61호:초당동), 조옥현 가옥(62호:난곡동), 최선평 가옥(81호:주문진읍), 박치규 가옥(82호:사천면), 조철현 가옥(87호:구정면), 박창규 가옥(91호:강동면), 함대식 가옥(92호:성산면), 산계리 금옥계 방역사적비및종선비(129호:옥계면), 강릉최씨 동원군 종택(136호:주문진읍), 용연사 석탑(139호:사천면), 용연사 석조관음보살좌상(141호:사천면), 청학사 청동불입상,청동보살입상(142,143호:구정면), 청학사 소장 석불좌상 · 광배 및 중대석(152호:구정면), 보현사 석조보살좌상(153호:성산면), 임영죽회첩(155호:죽헌동), 미타계첩(156호:죽헌동)
등록문화재(1)		♦강릉 : 임당동성당(475호:임당동)

2)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그림 5] 강릉시의 지오사이트_지리 명소 현황

지리 및 문화역사 명소를 중심으로 3가지 테마에 의거 지오투어리즘 코스(안)를 도출하였다. 강릉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경포대를 중심으로 이북지역을 대상으로 강릉 북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 이남지역을 대상으로 강릉 남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 이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릉 동서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로 구성된다. 첫 번째 강릉 북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는 강릉시 내 석호 중 북부에 있는 향호를 기점으로 소돌해변 아들바위공원, 해살이 마을, 선교장을 거쳐 경포호에서 마무리 된다. 이 코스는 석호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형과 파랑작용에 의해 형성된 해안 타포니 지형 등 지리명소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전해주는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해살이 마을과 선교장은 각각의 문화역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마을체험을 통한 참여형 학습을 선행할 수 있는 코스이다.

두 번째 강릉 남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는 강릉 남부의 암석해안을 중심으로 정동진역에서 출발하여 정동진 해안단구, 심곡마을, 현화로, 옥계 시멘트 공장으로 이동하는 자연과 자연을 활용한 인문환경을 배울 수 있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해돋이 명소로서 그리고 모래시계 방영 이후 유명해진 정동진역에서 레일바이크를 체험하고, 정동진해안단구로 올라 과거 바다였던 지형을 확인한 후 심곡마을에서 다양한 마을 체험을 실시한다. 이후 수로부인 이야기를 들으며 암석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옥계 시멘트 공장에 방문하여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암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 강릉 동서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는 대관령에서 시작하여 강릉시를 관통하여 주요 문화역사 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경포호로 향하는 코스로, 대관령의 탄생과 관련된 경동성요곡운동과 고위평탄면에 대한 지리적 해설과 대관령 옛길을 따라 걸으며 정신과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관아유적 및 사유유적에 대한 탐방으로 역사적 체험을 두루 할 수 있는 코스이다.

이러한 3가지 테마를 기본으로 한 지오투어리즘 코스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릉 북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코스	강릉 북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1	향호 - 소돌 해변 아들바위공원 - 해살이마을 - 선교장 - 경포호

① 향호	지리 명소
	강릉시 북부에 위치한 석호이다. 석호는 곡지형성-해수면상승-사취발달 순의 지형발달 과정으로 형성된다. 해수면이 안정될 경우 퇴적물 공급에 의해 석호는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향호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
② 소돌해변 아들바위공원	지리 명소
	풍화 미지형인 타포니를 관찰 할 수 있다. 타포니는 암석 측면에 염풍화 작용으로 암석의 반정이 제거되고 염정이 성장하면서 벌집처럼 구멍이 만들어진 것이다. 타포니는 초기 형성 이후 내부로 확장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③ 해살이마을	마을체험, 문화·역사 명소
	<p>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에 위치한 농촌 마을로, 과거 사기그릇을 만든 움막이 많아 사그막 또는 사기막이라 불렸다. 지금도 가마터와 사기그릇 잔흔이 발견되고 있다. 봄에는 개두릅축제가 열리며, 관노탈만들기 체험, 한과만들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다.</p>
④ 선교장	문화·역사 명소
	<p>전형적인 사대부 가옥의 형태이다. 본래 '배를 타고 건넌다', '배로 엮어 만든 다리로 건넌다'라는 의미로 배다리라고 불린 것이 유래가 되어 현재는 선교장(船橋莊)이라 한다. 다도체험, 예절체험 등을 할 수 있다.</p>
⑤ 경포호	지리 명소
	<p>해수면변동과 해안퇴적으로 형성된 석호로, 만의 입구를 가로막은 사주가 경포해변에 해당한다. 유입하천은 경포천이며, 바닷물이 하구로부터 유입되기에 기수역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적·인위적으로 매립된 석호 남서부 일대를 복원하여 경포가시연습지 및 경포생태저류지를 조성하였다.</p>

(2) 강릉 남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코스	강릉 남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2	정동진역 - 정동진 해안단구 - 심곡마을 - 현화로 - 옥계 시멘트공장

① 정동진역	문화·역사 명소
	강동면 정동진리에 있는 영동선 기차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다. 1962년에 만들어져 석산 수송이 주 업무인 작은 역이었지만 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된 이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미치는 지역의 변화를 알 수 있다.
② 정동진 해안단구	지리 명소
	천연기념물 제 437호로 지정된 해안단구이다. 해안단구란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계단상의 지형으로, 정동진 해안단구는 한반도의 융기 현상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자료이며, 이는 단구 위를 걷다 보면 나타는 둥근 자갈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심곡마을	마을체험, 문화·역사 명소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을로 해변가에 아늑하고 깊은 골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들어오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스킨스쿠버나 바다 낚시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헌화로	지리 명소, 문화·역사 명소
	<p>수로부인을 위해 한 노인이 절벽 위의 철쭉 꽃을 따다 주면서 불렀다는 <헌화가>의 이름을 따서 헌화로로 부르고 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도로로 알려져 있으며, 도로 옆에는 해식에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다. 고생대 지층으로 석탄을 바깥으로 드러나있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p>
⑤ 옥계시멘트공장	지리 명소, 문화·역사 명소
	<p>강릉 옥계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순도 높은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석회암의 고생대를 대표하는 암석으로 시멘트의 원료가 되며, 옥계에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시멘트산업은 강릉을 대표하는 공업으로 공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p>

(3) 강릉 동서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코스	강릉 동서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3	안반데기 - 대관령옛길 - 객사문과 칠사당 - 오죽헌과 선교장 - 경포호

① 안반데기	지리 명소
	<p>오랜 침식작용을 받은 평탄면이 신생대 제3기 경동성요곡운동으로 융기하여 높은 고도에 위치하게 된 고위평탄면인 안반데기는 왕산면 대기리에 위치하고 있다. 기후와 관련하여 고랭지 농업이 왕성하며, 지형적 특성에 의한 강한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p>

<p>② 대관령 옛길</p>	<p>문화역사 명소</p>
	<p>대관령은 영동과 영서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요지로서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신사임당이 대관령을 넘으며 친정을 다녀간 현대 이전의 주요한 교통로로 현재는 옛길을 활용한 하이킹 및 트레킹 코스로 주목되는 장소이다.</p>
<p>③ 객사문과 칠사당</p>	<p>문화·역사 명소</p>
	<p>대표적인 전통시대 관아 유적 중 하나인 객사문은 국보 제51호로 고려 태조 19년(936년)에 처음 건축된 건물이며 고려시대 건축물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몇 안되는 건물이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인 칠사당은 대도호부윤이 주재하던 조선시대 관공서로 호적, 농사, 병무, 교육, 세금, 재판, 풍속 등 7가지 정사를 베풀던 곳이다.</p>
<p>④ 오죽헌</p>	<p>문화·역사 명소</p>
	<p>오죽헌은 보물 제165호로 대표적인 사유 유적 중 하나로 1536년(중종 31) 이이가 태어난 유서 깊은 곳이다. 이 건물은 한국주택사에서 현존하는 유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장소이다.</p>
<p>⑤ 경포호</p>	<p>지리 명소</p>
	<p>해수면변동과 해안퇴적으로 형성된 석호로, 만의 입구를 가로막은 사주가 경포해변에 해당한다. 유입하천은 경포천이며, 바닷물이 하구로부터 유입되기에 기수역을 형성하고 있다. 자연적인위적으로 매립된 석호 남서부 일대를 복원하여 경포가시연습지 및 경포생태저류지를 조성하였다.</p>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시의 자연·인문적 특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지오투어리즘 탐방 코스를 개발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지형경관을 전문가 및 교사와 함께 답사하고 평가하여 탐방코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강릉시의 자연·인문적 특성을 테마로 하여 강릉 북부, 남부, 동서횡단 지오투어리즘 코스로 요약할 수 있다.

향호에서 경포 해변까지 이루어진 해안지형(사빈) 및 어촌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강릉 북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경포 해변부터 옥계까지 해안지형(암석해안 및 해안단구 등) 및 농업 이야기를 담은 강릉 남부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 경포 해변부터 대관령에 이르는 문화역사 이야기를 담은 강릉 동서지역 지오투어리즘 코스(안)로 강릉의 지오투어리즘 코스를 구성하였다.

참고문헌

- 강원도, 2013, “강원평화지역지질공원 신청서”
- 김창환, 2009, “한국에서의 지질공원 활동과 지리학적 의미”, 한국지형학회지, 16(1), 58.
- 김창환, 2011, “강원도 DMZ 지질공원(Geopark)의 지오사이트 선정과 스토리텔링”,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1), 117-134.
- 김창환 외, 2013, “GIS를 이용한 강원 평화지역 Geopark 거점시설 최적지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 23(3), 31-42.
- 심원섭, 2011,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관광활성화 과제, 국토연구원, 국토, 30-37.
- 왕광익, 2012, 국토연구원, 동계올림픽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추진, 국토정책 Brief (394), 1-6.
- 이상대, 2011, 지우석, 이수진, 박신영,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한 지역상생 발전방안, 정책연구 2011-66, 1-138.
- 이수재 외, 2008, “한국의 지질유산 정보구축 및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현정, 2009,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Ross Dowling & David Newsome, 2005, “Geotourism”, Oxford ; Burlington, MA: Elsevier.
- 世界のジオパーク編集委員・日本ジオパークネットワークJGN, 2010, 世界のジオパーク”
- 교신 : 이예지,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 033-250-6699, 팩스 : 033-259-5597, 이메일 : chicqq11@naver.com
- Correspondence : Lee, Ye-ji, adress, Department of Educational Geograph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ersity Road, Chuncheon-si, Gangwon-do, 200-701, Korea, Tel: +82-33-250-6699, Fax: +82-33-259-5597, e-mail: chicqq11@naver.com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동향

-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을 사례로 -

Research Trend on the border area

- A Case of Master's and Doctoral thesis in Korea-

허시영(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석사과정)

정성훈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Heo, Si-young(Ph. M course,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JUNG, Sung-Hoon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요 약 :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있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그 동안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지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국회전자도서관 색인을 통해 접경지역을 검색하여 도출된 석박사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석박사 학위논문을 탐색하는 것은 접경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척도와 접경지역을 연구하는 동향을 통해 향후 어떤부분에서 더 연구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50건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부분 서울지역의 대학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연구의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접경지역 전체에 대한 연구와 접경지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관광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투입된 정부 정책,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키워드 : 접경지역, 접경지역 연구동향

Abstract : The border area is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space in Korea.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suggestions on what kind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and what kind of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the dissertation of doctoral dissertation obtained by searching the border area through the index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Exploring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master's thesis will be able to look at some aspects of further research through the scale of academic interest in border areas and trends in studying border area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50 master 's doctoral dissertations were published and most of them were conducted at universities in Seoul. In the study area, the study of the whole border area and the study of the specific area in the border area were carried out. In terms of research contents, researches on development of bordering areas and tourism resources were mainly conducted, and recently government policies and support projects have been studied on bordering areas.

Keyword : border area, research trends

1. 서론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 접경지역에 해당되며,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질만큼 접경지역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있다. 이러한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 활동은 어느 학문 분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접경지역에 대해서 2015년까지 국회전자도서관에 등록되어있는 학위논문들을 1차적으로 연도별, 연구주제별로 분석하여 접경지역 연구자들의 학문적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접경지역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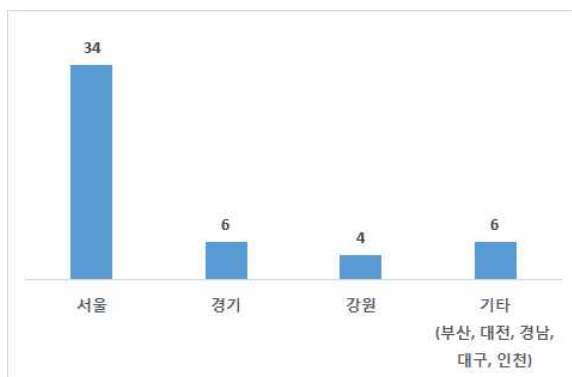
2.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의 자료 수집은 우리나라 학위자의 연구결과가 등록 입력되고 각 연구기관의 정보와 연결되어 문헌정보 및 학위자 논문 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국가의 국회전자도서관에 등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이 대상자료 선정은 국회전자도서관 검색 색인에서 '접경지역'을 입력하여 1차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차적으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서 정의된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를 분류하였다. 검색된 학위논문 중 원문이 게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문을 확인 할 수 없는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외시키고 이를 연도별, 석박사 학위논문연구주제로 나누어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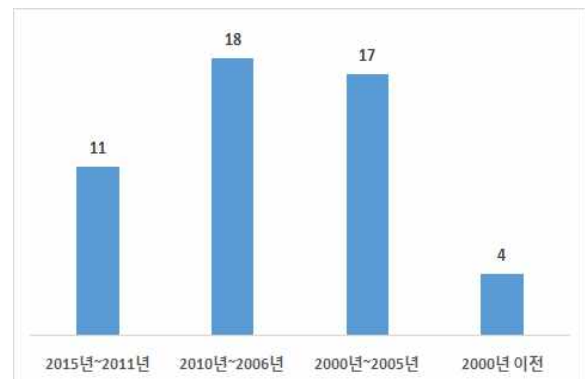
3. 연구 동향 분석

1)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 현황

국회전자도서관에 ‘접경지역’이란 단어로 검색을 했을 경우 총 62편의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특별법에서 정의된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는 총 50편으로 나타났다. 50편의 연구결과중 박사학위 논문은 7건, 석사학위 논문은 43편으로 조사되었다. 학위논문이 발표된 대학의 소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4편, 경기 6편, 강원 4편, 부산 1편, 대전 1편, 대구 1편, 인천 1편, 마산 1편, 김해 1편으로 나타났다. 학위논문이 발표된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4편 2000년~2005년에는 17편, 2006년~2010년에는 18편, 2011년~2015년에는 11편 점차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대학 소재 지역별 연구 현황



[그림 2] 시기별 연구 현황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된 학위논문 중 연구의 대상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4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6편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강원도 대상으로 8건, 경기도를 대상으로 17건이며 강원도와 경기도 일부분을 연구한 건수는 1건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내용에 관한 동향 분석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 내용을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2000년 이전 연구는 접경지역의 관광개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행정, 관광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 협력, 접경지역 지원법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전시기와 더불어 관광,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남북한 협력과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서 2015년에 발표된 연구의 특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정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그간의 추진되었던 정부시책을 유형화하고 새로운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표 1]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 연구 현황

연구자	학위년도	논문명
김영단	2015년	한국의 낙후지역개발 정책변동 분석
이종호	2010년	남북한 접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이기찬	2009년	수도권 접경지역의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김영봉	2009년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김문기	2007년	한반도 접경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 판문점 지역을 중심으로
박준규	2007년	민족과 국민사이 : 금강산 접경지역관광에서 민족경계 넘나들기
장용운	2003년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국제적 사례분석과 한반도 적용모델 모색

4.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접경지역 연구에 대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전자도서관의 자료검색에서 석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논문제목에 '접경지역'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였다.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분류준거로서 연도별, 연구 소재별, 연구대상별, 내용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접경지역에 대한 학위논문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분야는 지역개발, 관광개발, 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에 새롭게 안보와 관련한 의식과 남북협력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산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1년 이후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가 2000년~2010년에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접경지역을 주로 개발의 대상으로서 연구가 진행되어 학문적인 분야가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박사학위논문이 7편이 연구되었다는 것은 접경지역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를 '접경지역' 전체를 놓고 연구한 논문은 24편으로 주로 남북교류협력, 발전전략, 자원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접경지역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6편으로 주로 경기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지역 전반적으로 연구가 행해졌으나 강원지역은 철원지역만 주로 연구가 행해졌다.

둘째, 석박사 학위논문을 연구한 대학의 소재지역을 살펴보면 34편이 서울에서 연구되었으며,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의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는 12편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내 대학이 서울에 비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접경지역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응용연구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측면의 질적인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국회전자도서관, <http://dl.nanet.go.kr/>

경기도DMZ비무장지대, <http://dmz.gg.go.kr/>

이진순, 2001,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준규, 2007, 민족과 국민사이 : 금강산 접경지역관광에서 민족경계 넘나들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종호, 2010, 남북한 접경지역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단, 2015, 한국의 낙후지역개발 정책변동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교신 : 허시영,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 033-250-6699, 팩스 : 033-259-5597, 이메일 : chicqq11@naver.com

Correspondence : Heo, Si-young, adress, Department of Educational Geograph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ersity Road, Chuncheon-si, Gangwon-do, 200-701, Korea, Tel: +82-33-250-8082, Fax: +82-33-259-5597, e-mail: prismism@naver.com

DMZ HELP 센터정관

제1조(명칭) 이 센터는 강원대학교 부설 DMZ HELP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센터는 건강(Health), 환경(Environment), 생명(Life)과 평화(Peace)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DMZ와 그 인접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학문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이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통일의 초석인 DMZ에 기초한 지역간 통일 선도
2. 국내 유일의 DMZ 종합연구기관으로서 ‘DMZ학’ 창출
3. 국내외 DMZ 관련 사업 네트워크 허브 육성

② 이 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DMZ 정책연구
2.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DMZ 미래에 관한 연구
3. DMZ 콘텐츠개발 사업
4. DMZ 포럼운영 사업
5. DMZ 분야별 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6. DMZ 관련 사업들의 평가·관리·운영사업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이 센터에는 운영위원회, 연구협력실, 사무국을 둔다.

제5조(임원)

① 이 센터의 센터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센터의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연구협력실에는 실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센터 운영관련 제반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센터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협력실)

- ① 연구협력실에는 연구협력실장,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기준은 센터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연구협력실의 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하며, 책임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연구협력실은 연구사업과 평가관리사업 등을 담당한다.

제8조(사무국)

-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기능 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센터보유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
 4.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9조(수입) 이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대학지원금
2. 정부의 DMZ관련 지원금
3. DMZ관련 기관 또는 산업체의 연구용역비 및 기부금
4. 기타수입금

제10조(회계관직) 이 센터는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센터계약관 및 출납관을 두며, 계약관은 센터장이, 출납관은 사무국장이 된다.

제11조(예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DMZ 투고규정

2007년 3월 1일 제정
2012년 11월 22일 개정

1. 본 연구소의 논문집 「DMZ」(이하 ‘논문집’으로 칭함)에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 단보(Note) 및 총설(Reviews)로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거나, 발표예정인 것을 게재하며, 원고의 종별은 저자가 원고표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원고는 ‘한글(HWP)’을 사용하여 1단으로 작성(글자크기 : 10)한다.
3. 사용용어는 학회 또는 과학기술처 제정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국문의 고유명사를 영어로 표기할 경우 교육부 84년도안(<http://www.hangeul.or.kr/24.htm>)을 따른다.
4. 표지에서 제목 및 저자를 국문 및 영문으로 반복하여 표기하되, 주저자(first author)를 제일 먼저 표기한다. 저자의 소속기관은 해당저자의 이름 오른쪽 괄호 안에 기관명과 직위명을 표기한다. 교신저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은 원고의 말미에 참고문헌에 이어서 기입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인 경우는 제목의 오른쪽 상단에 *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5. 원고 작성은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국문으로 적고 이어서 영문으로 반복한 후, 국문요약, 영문 ABSTRACT, 본문<서론(또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영문으로 적고 이어서 국문으로 반복한 후, ABSTRACT, 국문요약, 본문<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또는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APPENDIX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속보, 총설 등은 저자의 편의상 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6. 주요어(KEYWORDS)는 7개 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요약 다음에 중고딕체(예 : 지리정보)로, 영문 ABSTRACT 다음에 이탤릭체(예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로 표기하되 학명은 고딕으로 표기한다.
7.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 및 설명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통일되어야 하며, 일련번호와 함께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나타내고, 별지에 제작된 경우는 본문에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8. 사진, 그림 등은 가급적 JPG, TIFF, Photoshop format 등으로 지정하되, 출력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자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사진으로 제출할 때는 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9. 도량형의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숫자와 도량형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단, 관례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온도나 % 등은 숫자에 붙여 사용한다.
10. 참고문헌(REFERENCES)에는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을 표기하며, 쪽수 등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입 순서는 국내, 국외문헌의 순으로 하되, 맨 앞의 저자명에 의해 국문이나 동양문헌은 한글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그 외는 알파벳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학회지 등의 일반논문

- 김철민·이준우·권태호, 1995,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한 오대산 국립공원지역의 지형분석, 환경생태학회지 9(1), pp.70-76.
- Tucker, A.M. and R.T. Williams. 1993a. Spectral characteristics of upland pine forest measured from LANDSAT-6 TM simulated imagery. *Photogrammetric Engineering and Remote Sensing* 63(7):pp.935-947.
- Tucker, A.M. and R.T. Williams. 1993b. Development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LANDSAT TM data. *Photogrammetric Engineering and Remote Sensing* 63(11):pp.1235-1247.

나. 심포지움 논문집 또는 학술발표회 초록집

- 박문수, 1999, 산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의 GIS 활용방안, 제4차 한국지리정보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 초록집, pp.18-24.
- Paris, J.F. 1983. On the use of polarized radar measurements for vegetation studies,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San Francisco, CA, Aug. 31-Sep. 2, 1983. Vol. 2, pp.51-54.

다. 학위논문, 단행본 또는 보고서

- 이승호, 1992, LANDSAT 화상자료를 이용한 산림식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4.
- Lauer, G.J. 1993. *The bottom fauna of two saline lakes in the Grand Coulee*. Ph.D. Thesis, Univ. of Washington, Seattle, USA. p.188.
- Ulaby, F.T., R.K. Moore and A.K. Fung. 1986. *Microwave Remote Sensing*, Artech House, Norwood, MA, USA. p.330.
- Bye, J.A.T. 1990.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e techniques*. Flinders Institute for Atmospheric and Marine Sciences Research Report 34, Bedford Park, Australia. p.17.

라. 단행본 또는 보고서의 장, 절

홍길동, 1997, 임도계획기법(산림토목환경연구회편, '산림공학', pp.182-210). 광일문화사, 서울.

Moore, I.D. 1996. Hydrologic modeling and GIS. In: M.F. Goodchild et al.(ed.). *GIS and Environmental Modeling: Progress and Research Issues*. GIS World Books. Fort Collins, CO, USA, pp.143-148.

마. 미발표 자료나 사진 또는 인쇄중인 책이나 논문

Doe, J.M. *Iowa college of Agriculture* Ames, Iowa(unpublished data).

Blaker, A.A.(In press) *Handbook for Scientific Photography*. Springer-Verlag, Berlin.

바. 보고서나 Proceeding, 논문집 등에서 저자명이 따로 없는 경우는 발행단체 또는 발행기관을 저자명으로 할 수 있다.

산림청. 1994.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기본계획수립. p.233.

HRS. 1988. *Technical and economic overview of aquaculture*. HRS Annual Report. Wallkingford, U.K., pp. 16-20.

11. 본문 중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국내저자의 경우는 성과 이름을, 국외저자의 경우 성만을 적되, 저자수에 따라 (홍길동, 1997), (홍길동·박문수, 1997), (홍길동 등, 1997) 이나 (Herrington, 1997), (Tucker and Williams, 1997), (Likens et al, 1997) 또는 (高木 등 1997)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며,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홍길동, 1997; 高木 등, 1997; Tucker and Williams, 1997) 등으로 표기한다.
12. 논문을 투고할 때는 원고 파일(출력된 원고인 경우 4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수정 본 파일을 제출한다.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원고의 심사는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규정에 의하며, 원고의 교정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4. 논문집은 연 1회(3월 마지막 날)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와 편집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로 문의한다.

「DMZ」 편집 및 출판 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DMZ HELP 센터' (이하 '센터'라 칭함)의 회칙에 의해 발간하는 연구소 논문집 「DMZ」 (이하 '「DMZ」'이라 칭함)와 본 학회에서 출판하는 모든 출판물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DMZ」의 발간 목적) 「DMZ」은 다양한 지리학분야에서 접근된 경험적 지역연구 논문과 여행 및 학술답사에 의한 답사기, 특보, 여행기, 칼럼 등을 편집·출판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집 및 출판사업의 운영) 「DMZ」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센터 정관에 따라 센터 산하에 조직된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장 「DMZ」 발간 및 배포

제4조(발간 회수) 「DMZ」은 년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제5조(발간일) 「DMZ」은 매 년 6월, 12월 마지막날에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배포양식) 「DMZ」은 본 센터에 가입한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DMZ」를 비롯하여 본 센터에서 출판하는 모든 출판물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편집위원의 자격) 지리학 및 관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된다.

- 1) 대학 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 2) DMZ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연구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 3) 정부, 국회 및 기타 유관정책기관에서 상위실무를 담당하는 자
- 4) 기타 관련 분야에서 연구 활동 능력이 탁월 자

제10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 1) 본 편집위원은 기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고, 이후 위원의 교체 및 증·감원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업무를 주관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정기 및 임시회의)

1) 본 위원회는 「DMZ」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기획을 위하여 연 1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2/3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고문 및 간사) 본 위원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원고의 투고 및 심사

제15조(원고의 구성 및 투고 자격)

1) 「DMZ」는 본 위원회에서 기획하며 청탁한 원고와 본 센터 회원이 투고한 원고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센터 비회원이 「DMZ」출판의 목적에 부합되는 원고를 투고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원고의 심사와 게재확정) 서평을 제외한 모든 원고는 본 위원회에서 선임한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본 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제17조(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규정) 원고의 투고자격, 원고의 종류, 원고의 분량, 심사과정, 심사기준, 심사료, 수정요구, 원고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DMZ」투고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비규정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DMZ」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은 통상관례를 기준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19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MZ」 논문 심사규정

2012년 1월 1일 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1. 이 규정은 DMZ HELP센터의 논문집 「DMZ」 (이하 「DMZ」 이라 칭함)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에 적용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분야를 구분한 후, 편집위원 3인 이상의 협의를 거쳐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는 게재가능,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로 도출하며, 상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최종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인 중 다수의 심사결과에 따르되, 심사위원 1인이더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할 시에는 추가로 2인의 심사위원을 더 위촉하여 재심사를 의뢰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른 추가 심사료를 부담한다.
 - 2) 수정게재로 판정된 경우의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 3) 수정재심으로 판정된 경우의 논문은 투고자의 심사결과보완서와 함께 수정 원고를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투고자는 이에 따른 추가 심사료를 부담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즉시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판정을 통보하고, 게재료를 반환한다.
4.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논문 게재에 대한 최종확정은 편집위원회가 하며, 심사자와 투고자는 논문 게재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확정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는 수정게재나 게재가능 판정을 받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센터장 명의의 논문게재확정서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6.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DMZ

제7권

발행 : 2015. 12. 31

발행인 : 김 창 환

편집인 : 정 성 훈

발행처 : 강원대학교 DMZ HELP 센터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교육2호관 311호

전화 : 033-250-6699

팩스 : 033-259-5597

E-mail : hillskim@kangwon.ac.kr

Homepage : <http://www.dmzhelp.or.kr>

조판·인쇄 : 출판기획 형

DMZ

2015 / 12 vol.07

Paper

A Study on the Use of DMZ in Gangwon Province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Unification Base on the Korean Peninsula · Jeong Hae-Yong·KIM Chang-Hwan

A Study of Development of local learning contents and geopark development in Gangneung city in connection with Winter Olympics
..... Lee Ye-ji·Jeong Hae-Yong·KIM Chang-Hwan

Research Trend on the border area Heo Si-young·JUNG Sung-Ho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MZ HELP CENTER